

병들고 가난한 이에 '자비의 등불'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4백회 돌파

"안대를 한 엄마의 눈을 예전처럼 고쳐줘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손님이 단진 조카에 맞아 실명 위기였던 엄마 눈수술을 도와준 '거룩한 만남' 담당이나온서 최은경·이선희에 이은(동양초등학교 5학년)양이 내은 감사의 편지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등불이 되온지 9년, 12월 4백회 생일을 맞은 불교방송 [장수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에 이치처럼 감동 어린 사연이 가득하다.

98년 7월17일(367회)에 방송됐던 진희의 어린이. 당시 다섯 살이던 진희는 연골무형성증이란 병을 얻어 성장이 멈춘 상태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비가 없어 발만 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거룩한 만남'을 통해 사정을 얘기하자

침취자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성장해 다른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잘 자라고 있다.

정신 45%의 화상을 입고 절망속에서 살아가던 서희정씨(32), 서씨의 딱한 사정이 98년 11월20일(384

9년동안 24억원 모금 400가구 후원 장애자·소년가장·노인등 돕기로

회)에 전파를 타자 후원자가 속출했다. 서씨 역시 엄마가 가슴 아파 할까봐 눈물을 꼭 참고 살았다는 딸 한나와 함께 행복을 되찾았다. 또 알콜 중독인 남편의 뒷바라지에 힘겨운 삶을 살다 그 충격으로 실명된 김현순(40)씨의 일화는 눈물 없는 들을 수 없었다. 이 내용은

을 1월15일(392회)에 방송돼 현재 김씨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프로는 치료비만 후원한게 아니다. 98년 9월4일(373회)에는 당뇨병과 백내장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며 노점상을 해 어렵게 살아가는 진영화씨(45)에게 전세금을 보조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어 주기도 했다.

후원을 받은 이들 못지 않게 후

원자들 또한 눈물겹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겠다는 맹인, 도라지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보내온 보살, 고인이 된 이모를 대신해 이모의 전 재산을 기탁한 청년 등 자신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시 정신을 실천한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7일 서울 포이동 노인 선원에서 '거룩한 만남' 4백회 기념 특집 행사 열렸다. 광명을 찾게 된 김현순 씨 가족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선희어나온서는 "91년 4월5일 첫 방송 이후 24억원을 모금해 4백가구에 후원을 해왔다"며 "얼굴 없는 청취자들이 배우는 보이지 않는 선정에 제작진이 오히려 숙연해질 때가 많았다"고 밝혔다. '거룩한 만남'은 4백회를 계기로 수송비가 부족한 이들 외에도 '장애자·소년가장' 등 '불우노인' 등 후원의 대상을 넓혀 좌절과 절망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 한줄기 빛이 돼주는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할 것이다. 김주원 기자 (jikim@buddho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⑧



정태혁

(동명대학교학장)

"몸과 마음이 건전해야 부처가 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것이 진정한 불교 수행법입니다. 마음만 닦는 것은 질풍람이 수행입니다."

정태혁 동명대학교학장(78·동국대명예교수)은 40여년 동안 아침마다 요가를 해왔다. 61년 일본 도쿄에 대한인 인도철학과에서 공부를 즈음에 요가를 배운 정 학장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요가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했다. 동국대에 출강하면서 20여년간 탑골공원, 종로5가, 광화문, 강남아파트 인근에 요가도장을 열고 사람들을 지도해 왔다. 새벽반, 저녁반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본업인 학문활동에 지장이 많아져 부득이 중단할 때까지 요가 보급에 큰 공헌을 했다.

마음과 몸은 함께 닦아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요가

하지만 이후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요가, 1시간 참선으로 건강은 물론 수행에 한 시도 내내한 적이 없다. 지금의 그의 정신적 풍요와 건전한 몸은 하루도 거르지 않은 요가와 참선 덕분이다.

"불교의 선은 원래 인도의 전통사상인 요가에서 기원했습니다. 중국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대사 역시 마음 한 번 바꾸면 번뇌 즉 보리(菩提)임을 강조하는 '전심(轉心) 요가'의 달인이셨죠."

요가는 마음을 완전히 고요한 상태(寂靜)에 이르게 해 자의식이 없는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나아가 몸과 마음을 용광로 속의 도자기처럼 단련시켜 생각에서 해탈케 한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요가는 수행의 큰 방편이기도 하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의 아담한 전원주택에서 명상과 저술활동을 병행없이 계속하고 있는 그는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출·퇴근 길도 명상의 소재가 될 정도다.

인도철학과 밀교학의 권위자로서 36권의 방대한 저서를 출간한 그는 물리학의 통일장이론에 비견되는 불교사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정학장은 연꽃마을 노인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노인들의 건강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몸과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고 건전한 몸을 유지해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파라미타 등 서울시 위탁사업 신청서 탈락

교계 청소년사업 질 높여야

인력·재정확충 절실

교계 청소년 단체들이 사업 위탁에 예년과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 단체들은 프로그램 개발, 조직 강화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 공모한 '99년 청소년건강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단체'에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정연스님, 이하 파라미타)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이하 청교련) 등이 5개 부문에 응모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이번 공모에는 YMCA, 한국청소년연맹 등 32개 단체들이 94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 중에서 파라미타는 '자율봉사센터 운영 △99년도 청소년 겨울캠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 4개 사업으로, 청교련은 △청소년전문문화사업으로 각각 응모했다.

파라미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의 내용성과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할 단체의 역량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며 "교계 청소년단체들이 모두 탈락한 것은 타 단체와 비교해 프로그램의 질과 대사회적 공신력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선정된 단체들은 한국청소년연맹,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YMCA 서울기독교청년회 등과 같이 프로그램 개발 인력과 재정 능력을 갖춘



◇파라미타에서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위탁해 실시한 '98 청소년 겨울 캠프' 현장.

단체들이다.

반면 교계 청소년 단체들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에만 매력을 느끼고 사업 위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체 스스로 청소년 프로그램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파라미타의 경우 이번 공모에서 마저 탈락함에 따라 99년도 청소년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조달현 청교련 사무국장은 "교계 청소년단체에서 시·도의 위탁 사업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체의 인력·재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남다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불법 폰팅 음란광고 추방 결의

인천청교련·사암련 19일 공청회

지역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계 청소년단체가 나서 주목된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이하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을 결성, 4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청교련 인천지부가 결성한 실천모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모임 인천지부' '인천사암연합회' '인천 YMCA' 등 19개 시민·청

소년·종교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은 "편법수단을 동원해 음란광고를 심는 생활정보지를 수거·소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700음성사서함의 경우 사서함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사서함 광고를 게재한 정보지를 '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 회신을 폐쇄하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는 19일 오후 4시 인천 시민회관에서 '전화사서함, 원조교제 그리고 청소년'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10대 매춘의 실태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동시설 진여원 헌웃 ·참고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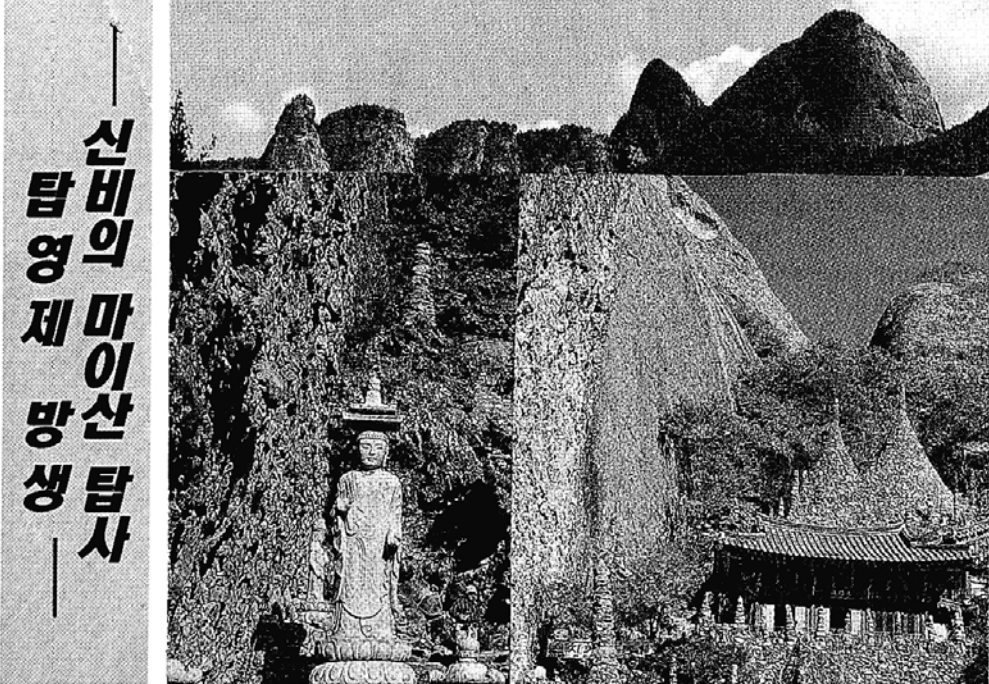
불우아동들의 수용시설인 충주시 진여원(원장 법성스님)에서 교복과 참고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진여원에 살고있는 청소년 중에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7명. 이들의 교복값만 약 1백만원, 그러나 외부의 지원이 거의 없어 학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진여원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거금이다.

법성스님은 "외부 후원이나 지원이 전혀 없애 감수목 막막하다"며 "한 교복과 참고서라도 지원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441)851-6013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탁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세요?
현대 결혼 연구원 이영숙 원장입니다.
온누리에 두루하신 부처님! 1999년 21세기를 향해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성원해주신 은혜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영등포에서 98년 12월 27일 종로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인사 드립니다.
미래 지향적인,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원장 이영숙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55호 밀골공인 묵은편 사/8391번 호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지(龍) 수(水)의 차(차) 특별보사
전 전수종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인공불교 선목기(선목기) 조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묵화 방자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제, 가정문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준순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